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소장, 정보문화 유공 대통령표창수상

- 개인정보보호 및 ICT 역기능 해소 연구에 기여
- 올바른 ICT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당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소장 김범수 교수)는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31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김범수 소장이 정보문화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범수 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역기능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 등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범수 소장은 2000년 초반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해왔다. 2015년에는 연세대 내 설립된 바른ICT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정보격차, 스마트폰 과의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구와 관련 활동을 진행해 왔다.

김소장은 이외에도 가상현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VR 개발자와 사용자가이드 발표, 개인정보보호 국제적 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아시아프라이버시브리징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빠르게 발전해온 ICT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ICT보다는 바른 ICT를 위해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노력하고 있으며, 올바른 ICT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

대 속에서 설립됐다.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